~~12.~~ 8.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조선 토지 조사 사업 신고서)

日帝(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점령하자 1910~1918년까지 약 9년간에 걸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이 조사를 위해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에 臨時土地調査局(임시 토지 조사국 ~~[illegible]~~)을 설치하여 ~~5천명~~ 3,000명의 직원을 두었다 이 조사에는 총 2,000여 ~~[illegible]~~ 萬円(만엔)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1918년에 출간된 이 보고서는 총 850쪽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다 더욱 앞서 기술한 〈朝鮮地誌資料(조선지지자료)〉 438쪽을 참조하면 ~~4288쪽에~~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보고서는 실로 1288쪽에 달한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우메나라난다 15년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된 台湾(대만)에서 1898-1904년까지 6년간에 걸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한 바 있다 이들은 대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선시 했다 더욱 식제는 대만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지휘하던 目賀田太郎(메가타 다로)등 전문가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조사의 대상은 耕地(경작지)랏 宅地(택지)랏 조사지역내의 山林(산림)이 었다 조사내용은 소유권조사와 測量(측량), 地籍調査(지가조사)와 축척 1:50,000의 지형도(지도) 제작이 었다

그러면 일제는 왜 토지 조사 사업이 필요 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제는 그 필요성을 韓末(한말)의 토지 제도의 문란 등을 들고 있으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農地稅(농지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합병해 놓고 보니 稅源(세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근대적인 산업도 기업도 없었음으로 어디다 세금을 걷을 곳이 없었다 酒稅(주세)나 담배 등에 부과되

는 간접세는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총독
부 각 원의 인건비에도 태부족한 상황이
었고 궁리한 끝에 土地(토지)에 대한 課稅
(과세) 밖에 방도가 없어 농지와 대지에 대한 이른
바 토지세를 징수 하자는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토지의 등기제도가 없
기 때문에 일야는 대부분이 문중 소유이고
또 많은 집안에서 알아서 대대로 보호를
명작 하고 있는 관습 때문에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고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방법이 없었다 토지조사의 결과 경작지
비율이 전국토의 18.4%라는 것이 밝혀진다
1910년부터 농지세가 부과되자 소작료는
두배로 뛰었다 이당시 우리나라는 5%가
지주였고 95%는 소작인이었다 소작료인상에
따라 농민들의 생활은 궁핍해 졌다 왕조시대
부터 만성적인 흉작기가 있기는 했지만 보
리고개가 심화된것은 이때부터라 할수있다 농
촌에서 생활수단을 잃은 수십만의 청년들은 만주·일본등지
로 혈값의 노동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